중국, 대체에너지원 풍력발전 육성

2010년까지 최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 ... 2조원 투자 200만kW급

중국이 석탄과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풍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Hubei성 張家口에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소를 2010년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중간규모의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발전 용량과 맞먹는 200만kW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자금은 180억위안(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Beijing 서북쪽으로, 內蒙古 고원에서 화북평원으로 이어지는 바람길로 알려진 곳이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풍력자원으로 700만-8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iangsu성 東台시는 최근 17억위안(약 2011억원)을 투자해 20만kW급 풍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건설을 맡은 國華에너지투자공사는 향후 10-15년 사이 발전용량을 100만kW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량의 70% 가량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 43개 풍력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국내 총 에너지 공급량의 1%에도 못 미친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126만kW 수준인 풍력발전량을 2010년까지 500만kW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4>